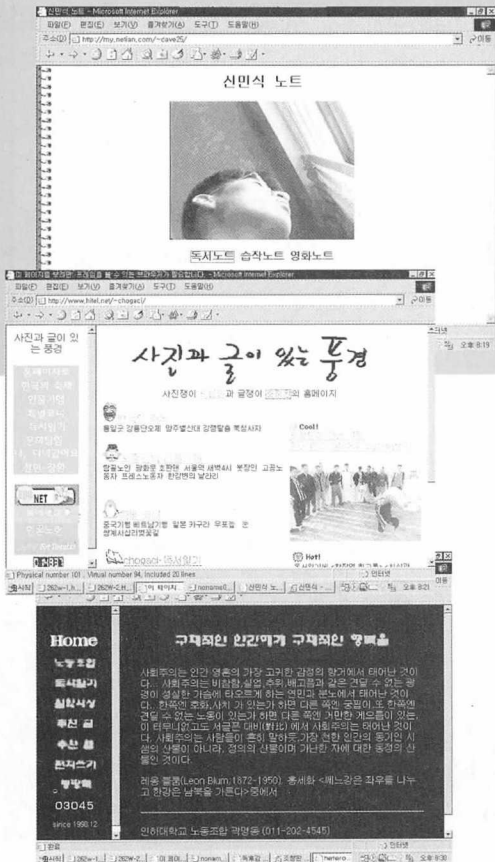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젊은 독서가들

독서일기 사이트 운영하는 조창완 · 곽명동 · 신민식씨



인터넷 독서가. 인터넷에서 디지털상으로 책을 읽는 최첨단 독서가 아니다.

아직도 종이책을 들고 킁킁거리며 한 권의 책을 읽은 뒤,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독서일기를 쓰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변사람에게만 독후감을 들려주던 독자에서 서로 독후감을 공유하고 책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정보사회의 예감을 느끼게 하는 젊은 독서가들을 만나본다.

“책을 읽은 소감을 적을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공개되는 독서일기는 꾸준히 책을 읽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죠.”

곽명동

inhavision.inha.ac.kr/~f898206

“사이버공간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공격에 즉자적이라 토론이 어렵죠. 결국 나만을 위한 독서일기가 되는 까닭은 그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절실한 게 떠오른다. 그에게는 그게 책이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던 시절, 책과 노트를 구해 인상적인 구절을 만나면 적어갔다. 대단한 계획이 있거나 읽은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돈이 그렇듯 다만 책을 읽는 일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자신이 조교로 일하는 인하대노동조합에서 학교전산망을 이용해 처음 독서일기를 올리기로 시작했지만, 이 일의 기원은 그 시절부

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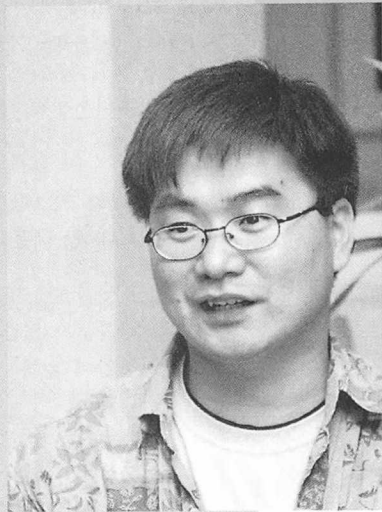
통신에 가입하기 전까지 한번도 쓰지 않은 독서일기가 하이텔에 연계되는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정작 책 얘기는 안하고 자기 얘기로 시작하는 그의 독특한 방식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음욕과 지식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 기묘한 일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됐다. 그즈음 《미디어오늘》의 기자로 일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의 독서량은 놀랍다. 2권에서 10권 사이를 오르내리는 월평균독서권수의 그래프는 삶에 대한 그의 응전능력과 반비례한다. 힘들고 지칠 때면 그는 책 속으로 빠져들었고 독서일기를 통해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서 점점 흐려지는 것들을 되살리며 스스로 위로받았다. 문학서가 많은 까닭도 그 때문이다. ‘Chogaci’ 라는 아이디가 좀 더 고상한 ‘고도(考島)’로 바뀌게 된 것도 이즈음. 그리고 그는 98년 7월, 통신공간을 떠나 인터넷으로 진출해 그간 축적된 독서일기를 바탕으로 《문예평론》이란 웹진을 창간하고 편집장이 됐다. 또한 전자책 《수레바퀴 아래에서 책읽기》를 펴내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저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올해 서른한살. 조만간 중국행 보트를 타고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

조창완

www.hitel.net/~choga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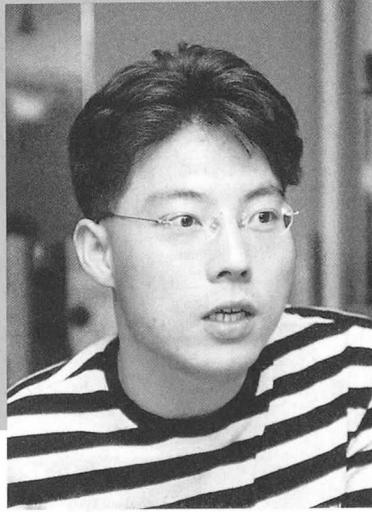
“책은 내게 지난 시절을 반추해주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책읽기란 곧 내 삶을 되풀이 읽어가는 한 방식. 책을 읽고 독서일기를 쓰는 까닭은 그 때문이죠.”

‘Chogaci’란 정체불명의, 알파벳을 읽는 방법에 따라서는 음란한 통신아이디로 95년 하이텔문학관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읽은 책의 내용이 뒤섞인 글을 거의 3일 간격으로 게시판에 올리면서 사이버독서계(그런 것이 있다면)에 처음 등장했다.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예컨대 까뭉처럼 흥분에 못 이겨 어둔 거리를 마구 달리거나 나폴레옹처럼 달리는 마차 밖으로 책을 던져버리거나 하는 일 중에서 게중 얌전한 독서일기 쓰기를 택했다. 왜? 그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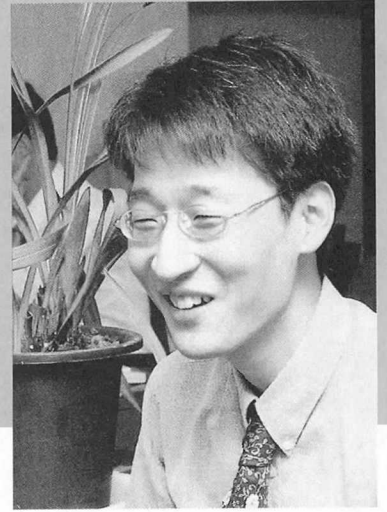
조창완

“독서일기는 꾸준히 책 읽게 하는 장치”



곽명동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인 행복을”



신민식

“독서일기의 출발점은 밑줄 긋기”

터다. 하지만 독서일기는 그가 생각하는 꿈의 작은 한 부분이다. 스스로 학교가 되는 어떤 사람. 인문·사회·문학 자료를 충분하고 실효성 있게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는 꿈을 꾸고 있다. 단순한 감상보다는 분석적 내용이 많은 점, 문학서보다는 《유평토피스틱스》·《옥중 19년》 등 인문사회과학자가 눈에 많이 띄는 점, 독서일기보다 철학사상을 더 비중 있게 담는다는 점 등은 그 때문이다. 강준만 교수를 둘러싼 통신상의 토론에 뛰어들고, 적이나 좋은 책을 소개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한다.

인터넷공간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좋은 책과 글을 소개하는 동안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그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입간판처럼 써놓은 글이 그 사실을 웅변한다.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인 행복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 즉시 독서일기를 쓰지 않으면 계속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운 일이지요.”

신민식

www.netian.com/~dave25

“공개적으로 독서일기를 쓴다는 건 결국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쓴 적은 없지만, 읽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1천권을 읽고 독서일기를 쓰겠다는 결심을 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심이다. 그리고 정말 하루에 한 권씩 독서일기를 통신에 올렸다. 이제 그만큼의 속도는 붙지 않지만, 94년부터 지금까지 독서일기는 계속 써어졌다.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이다. 해서 사람들은 “한 명이 올리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며 사람들은 밑줄을 긋는다. 밑줄은 책을 읽을 당시 자신의 지적수준과 감정상태, 개인적인 역사를 말해주는 기념비적인 선이다. 그가 독서일기를 쓰게 된 까닭은 대개 빌린 책이라 이 밑줄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밑줄을 그을 만한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바로 독서일기의 출발지점이다.

결국 1천권의 독서일기는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지만, 국내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독후감을 가졌다. 스스로 인정하듯 워낙 잡독이라 파스칼의 《팡세》에서 《보석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을 읽은 흔적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잡독도 세월이 흐르고 보니 철학·문학·역사·인문 등 8개 큰 분야와 한국소설·외국소설·SF 등 하위분류로 나뉘게 됐다. 그의 잡독은 동네의 주민문고에서 눈에 띄는 책을 찾아 읽으면서 시작됐다. 이문열·이외수·나쓰메 소세 등 전작 읽기를 거쳐 이제 서점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보이지 않는 책을 찾아다니는 독서로 바뀌었다.

그는 국내에서도 주제별·장르별·작가별로 독서사이트가 분화돼 전문화된 독자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광장으로 인터넷 공간이 움직이는 날을 기다린다.

“내가 언제,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의 서지사항은 어떤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란 점에서 독서일기는 큰 효용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라도 밑줄 친 부분을 읽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김연수 기자